

2019년 하반기



인도 첸나이 출장참고자료

【 목 차 】

I. 인도 개황	1
II. 정치 동향	4
III. 경제 · 무역 동향	7
IV. 한-인도 경제 교류	11
V. 인도 시장특성	15
VI. 남인도 지역 현황	18
VII. 체류 활동 정보	21
VIII. 주요 연락처	27
IX. 기타정보	28



I. 인도 개황

1. 국가 개요

국명	인도 (Republic of India)
위치	남아시아 (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적	3,287,263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수도	뉴델리 (New Delhi)
시차	- 3시간 30분 (인도 오전 8시 30분 = 한국 낮 12시)
인구	13억 1,689만명 ('18(E), IMF)
주요 도시	New Delhi(1,868만명), Mumbai(2,153만명), Kolkata(501만명), Chennai(981만명), Bengaluru(1,157만 명) 등
민족	인도-아리안계 (72%), 드라비다계 (25%), 몽골계 및 기타 (3%)
언어	힌두어, 영어, 주요언어 21개 등
종교	힌두교(80.5%), 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 (0.8%), 자이나교(0.4%)
건국(독립)일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원수(대통령) :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 취임일 : '17. 7. 25 (5년 임기) ○ 총리 :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 취임일 : '19. 5. 30 (5년 임기, '19년 총선을 통해 재선) ○ 소속 정당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 자료원 : Census of India, IMF,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통계청, CIA, World Bank



2. 경제지표

명 목 G D P	US\$ 2조 8,480억 ('18년(E), IMF)			
경 제 성 장 륜	7.35% ('18년(E), IMF)			
1인당 GDP	US\$ 2,134 ('18년(E), IMF)			
실 업 륜	3.52% ('17년, CEIC)			
소 비 자 물가상승률	4.95% ('18년(E), IMF)			
화 폐 단 위	Rupee, Paise			
환 율	US\$ 1= RS. 70.27 ('19년 1월 3일)			
외 채	US\$ 5,104억 ('18년 9월, RBI)			
외환 보유고	US\$ 3,932.87억 ('18년 12월, RBI)			
산 업 구 조	서비스업(53.66%), 건설업(7.74%), 유틸리티(2.46%), 제조업(16.57%), 광업(2.25%), 농업(17.32%) (2016-17 회계연도, 인도 인도통계실행부)			
교 역 규 모	구분	2015	2016	2017
	수 출	2,679	2,646	2,995
	수 입	3,941	3,617	4,498
	무역수지	-1,262	-971	-1,503
* 자료 : GTA / 단위 : USD 억				
교 역 품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고무, 석유화학 합성원료, 기타기계류, 기타 석유화학 제품, 무선통신기기, 금형 등			
	○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합금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천연섬유사,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곡실류, 아연제품 등			

*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까지 해당

* 출처 : 인도중앙은행(RBI), 인도통계실행부(MSPI), CEIC,, IMF, Trading Economics, GTA 등



3. 한-인도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4. 8월 무역협정 / 문화협정(1974.8월 발효)○ 1976. 3월 과학기술협정(1976.8월 발효)○ 1985. 7월 이중과세방지협정(1986.8월 발효)○ 1992. 3월 항공협정(1992.3월 발효)○ 1993. 9월 관광협력협정(1993.10월 발효)○ 1996. 2월 투자보장협정(1996.5월 발효)○ 2004.10월 형사사범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2005.6월 발효)○ 2005. 8월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2005.10월 발효)○ 2005. 9월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2005.9월 발효)○ 2006. 2월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2006.2월 발효)○ 2006. 2월 세관협력협정(2006.4월 발효)○ 2006. 2월 과학기술협정(개정)(2006.8월 발효)○ 2009. 8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2010.1월 발효)○ 2010. 1월 수형자이송조약(2012.6월 발효)○ 2010.10월 사회보장협정(2011.11월 발효)○ 2011.7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2011.10월 발효)○ 2011.11월 한-인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2.3월 사증절차간소화 협정(2012.3월 발효)○ 2015.5월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2015.11월 항공 협정 개정																																																						
교역규모 및 교역품	<div>○ 교역규모<div>(단위 : USD 억, %)</div><table><tr><th>구 분</th><th>2009</th><th>2010</th><th>2011</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r><tr><td>수 금 액</td><td>80.1</td><td>114.4</td><td>126.5</td><td>127.8</td><td>120.2</td><td>115.9</td><td>150.5</td><td>156.1</td></tr><tr><td>출 증가율</td><td>-10.7</td><td>42.7</td><td>10.7</td><td>12.4</td><td>-5.9</td><td>-3.6</td><td>29.8</td><td>3.7</td></tr><tr><td>수 금 액</td><td>41.4</td><td>56.7</td><td>78.9</td><td>52.7</td><td>42.3</td><td>41.8</td><td>49.4</td><td>58.8</td></tr><tr><td>입 증가율</td><td>-37.1</td><td>37.0</td><td>39.1</td><td>-14.7</td><td>-19.6</td><td>-1.2</td><td>18.1</td><td>19.0</td></tr><tr><td>무역수지</td><td>38.7</td><td>57.7</td><td>47.6</td><td>75.1</td><td>70.7</td><td>74.1</td><td>101.0</td><td>97.3</td></tr></table></div> <div><div>○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div><div>- 철강관, 합성수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화학원료 등</div><div>○ 對인도 주요 수입품목</div><div>- 나프타,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합금철, 정밀화학원료, 아연괴 및 스크랩, 의약품 등</div></div>	구 분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금 액	80.1	114.4	126.5	127.8	120.2	115.9	150.5	156.1	출 증가율	-10.7	42.7	10.7	12.4	-5.9	-3.6	29.8	3.7	수 금 액	41.4	56.7	78.9	52.7	42.3	41.8	49.4	58.8	입 증가율	-37.1	37.0	39.1	-14.7	-19.6	-1.2	18.1	19.0	무역수지	38.7	57.7	47.6	75.1	70.7	74.1	101.0	97.3
구 분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금 액	80.1	114.4	126.5	127.8	120.2	115.9	150.5	156.1																																															
출 증가율	-10.7	42.7	10.7	12.4	-5.9	-3.6	29.8	3.7																																															
수 금 액	41.4	56.7	78.9	52.7	42.3	41.8	49.4	58.8																																															
입 증가율	-37.1	37.0	39.1	-14.7	-19.6	-1.2	18.1	19.0																																															
무역수지	38.7	57.7	47.6	75.1	70.7	74.1	101.0	97.3																																															
투자교류	<div><div>○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18년 9월까지)</div><div>- (신고건수) 3,355건, (투자금액) 57.1억 달러</div><div>○ 주요 투자 업종 (∼18년 9월까지, 투자금액 기준)</div><div>- 제조업(84.58%), 도소매업(5.47%), 건설업(2.51%) 등</div><div>○ 인도의 對한국 투자 (∼18년 9월까지, 신고기준)</div><div>- 총 667건 5.7억 달러, 운송용 기계,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div></div>																																																						
교민	총 교민 수 11,000여 명 (2017)																																																						

* 출처 : 인도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II. 정치 동향

1. 개황

□ 인도 정치 현황

- 2014년에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신속한 정책, 책임 있는 정부를 모토로 기업환경 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 최소정부, 최대 거버넌스를 슬로건으로 부처 통폐합, 혁신 마인드 확산
- 2016년말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전격적으로 실시한 고액권 화폐 통용금지 조치로 역풍을 맞이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까지 지방선거에서 연승하며 집권여당은 정국을 주도

□ 인도 총선거(17th Lok Sabha)

- 9억 명의 유권자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19. 4.11 - 19. 5.19)
 -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최된 인도 17대 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여 모디 정권 2기 시작

2. 주요정책 : 모디노믹스

□ 정의 및 배경

- 친성장, 외자유치, 제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변되는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칭
- 기존 인도의 여당인 UPA연정이 치솟는 물가, 더딘 경제성장,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반면 모디 총리의 NDA연정은 부정부패 척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제조업 진흥 등을 종합한 경제 개선책을 선보여 모디노믹스란 신조어를 탄생시킴

□ 현황 및 전망

- 모디정부 출범 후 '15년 4월-12월 기간 중, 對인도 FDI유입액이 전년대비 40% 급증하는 등 인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Make in India

○ 배경 및 목적

-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평균연령 28세의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인도에 고용 창출은 필수이며,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주장
- 현 인도 모디 정부의 핵심 정책, 지속적인 경제 발전, 고용 창출, 제조업 비중 증대(2022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5% → 25%로 높이는 것이 목표)를 목적으로 함

○ 현황 및 전망

- Make in India 캠페인은 총 25대 산업분야(자동차, 항공, 생명공학, 화학, 건설, 방위산업 등)의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특성별로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재 산업, 전략 산업, 경쟁력 보유 산업으로 구분
- 단순한 양적 규모 증대가 아닌 적극적인 기술교육과 투자 유치, 기술이전 등으로 기술 경쟁력을 길러 인도 제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 인도정부는 제조업의 GDP기여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나, 2017-18 회계연도 기준 16.7%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모디의 3대 경제개혁과제

○ 간접세 개혁 : 인도 통합 간접세(GST) 도입

-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통합 간접세(GST)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를 CGST(Central GST)로, 주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를 SGST(State GST)로 통합한 후 각각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식임
- 전망 및 시사점 : 통합 간접세 시행으로 물류, 소매업, 시멘트, 자본재, 제약 등 제조업 분야와 IT 기술 분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통합 간접세의 시행 목적이 세수확장이 아닌 세제 투명화이므로 제도의 정착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인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토지수용법 개정

- 배경 : 모디 총리는 댐, 공장 설립과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토지 수용 과정과 법적분쟁 등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강조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5개 유형의 프로젝트(① 방산, ② 농촌 인프라, ③ 주택, ④ 산업회랑 프로젝트, ⑤ 정부 소유지)에 대한 주요 이행 의무사항 세 가지 면제((a) 사회영향조사, (b) 농경지에 대한 토지수용 제한, (c) PPP 합의)
- 그러나 비판이 거세 토지수용 관련 개정 시도는 2015년 8월 말 잠정적으로 중단됨

○ 노동법 통합

- 배경 : 부진한 인도 제조업(GDP의 16%)의 원인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꼽히고 있으며 각종 노동규제 및 경제성장 대비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1984년 이래 인도 노동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노동법 보호대상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전망 및 시사점 : 전면적 개정은 어려우나 점진적 변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주 정부별 노동법 제정을 할 수 있으므로 주별로 다른 노동법규가 적용됨. 정부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 주 별로 접근이 상이하므로 노동 관련 사안은 지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화폐개혁

○ 루피화 고액권(500루피, 1000루피)에 대한 통용 금지 전격 단행

- 모디 인도 총리는 2016년 11월 8일 저녁 시중 유통 현금의 86%에 이르는 500루피, 1천 루피 지폐의 통용 금지와 신권 발행 조치를 전격 발표함

□ New India by 2022

- 인도 국가개조위원회(Niti Aayog)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총선 공약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New India by 2022년 달성 액션플랜 >

부 문	세부내용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GDP 4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연 7-8%의 성장률을 2022년까지 연 9%대로 끌어올림. - 2022년까지 현재의 총 고정자본형성을 GDP 대비 29%에서 36%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현 GDP대비 4%에서 7%로 상향 - 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동법의 개정을 반드시 완료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향후 5년간 60,000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총 연장을 현재의 2배로 확장 - (철도) 철도 궤간 확장 및 전력구동화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초고속, 고속 철도를 확충. 전역사에 Wi-Fi 도입 - (공항) 현재 101개의 공항을 2022년까지 2배로 확충 - (해운) 2022년까지 항만의 물류 처리용량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고 연안수로, 내륙수로 개선 및 철도 등 내륙운송 수단과의 연동 확대 - (통신) 2022년까지 25만개의 마을단위(Gram Panchayat)에 광섬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보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건 구축계획인 Ayushman Bharat 정책을 안착시키고, 2022년까지 전국에 15만 개의 보건센터를 설립을 완료 - 법학, 공학, 과학 및 경영 분야 고등교육기관을 2022년까지 50%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강화
공공행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정부와 최대의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개선 - Clean India 프로젝트를 수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

*출처 :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BJP 총선공약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III. 경제 · 무역 동향

1. 인도 경제 동향

□ 침체된 글로벌 경기, 유일한 고성장 국가 ‘인도’

- 2018 인도 GDP 규모는 세계 7위, 2014년 이후 7% 대의 성장률 유지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FY17	FY18
6.3%	4.5%	4.7%	7.1%	7.3%	7.6%	7.1%	7.2%

* 자료원 : Central Statistics Office

* 인도 회계년은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FY17년은 2016.4 - 2017.3 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2015년(FY16) 인도는 7.6%의 GDP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6년 만에 중국(6.9%)를 추월하였음. 이는 신흥국 경제성장 평균치(4.0%)의 두 배에 가까운 실적임
- 2016년 초 맥킨지는 인도가 2016-2020년 간 연평균 7.7%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중국(6.4%), 러시아(2.3%), 브라질(2.2%) 등 기타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임
- 현재 성장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30년 이후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민간 경제 전망 기관 블룸버그, 미국 농림부, EIU 등이 모두 같은 전망을 발표)

-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 인도의 GDP에서 내수 비중은 80% 후반에 달해 BRICs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는 인도 현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 서비스업 중 내수시장 규모가 큰 산업으로는 건설, 육상운송, 소매, 금융 순이며 제조업 산업으로는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등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 성장하는 인도 소비시장

- 2025년까지 인도의 소비시장이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40년에는 인도인 10명 중 9명이 하루 USD 10에서 USD 100을 소비하는 글로벌 중산층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가 1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 낮은 평균연령, 증가하는 소득 수준으로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2010년 가구별 평균 소득 USD 6,393에서 2020년 가구별 평균 소득은 세 배 증가한 USD 18,448로 전망)
-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기초생활비 외에 재량지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1년까지 재량지출 비중은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식품·주거·내구재·통신과 같은 분야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통신비 지출이 빠르게 확대



□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및 규제 개혁

-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 3년 간 'Make in India'를 모토로 방위, 철도 산업 등을 포함한 21개 산업 내 87개의 FDI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 및 지속적인 7% 대의 경제성장률로 인해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AT커니에 따르면 투자자 관심도도 2015년 11위에서 2017년 8위로 상승
- 인프라 투자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인도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 동력이 되고 있음

□ 안정적 환율, 외환 보유고 유지

- '11년까지 USD 당 45루피 수준이던 루피화 가치는 점차 하락하여 2014년 이후 60-68루피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5월 USD 3,122억에서 2017년 3월 USD 3,700억으로 늘어 18.5%의 증가율을 나타냄. 이와 같은 외환보유액 수치는 향후 10개월 동안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임

2. 인도 무역 동향

□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

< 인도 수출입 동향 >

(단위 : USD 억)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 출	2,679	2,646	2,995	3,246
수 입	3,941	3,617	4,498	5,145
무역수지	-1,262	-971	-1,503	-1,898

* 자료 : GTA / 단위 : USD 억

- 서비스업 중심의 인도는 제조업 낙후로 인해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자본재는 물론 소비재 수입도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 시행과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인도 상위 10대 수출국가>

(단위 : USD 백만)

순위	국가	2017	2018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
				2017	2018	
0	WORLD	295,775	323,027	100	100	9.2
1	미국	46,053	51,601	14	16	12
2	아랍에미리트	30,011	29,003	9	9	-3.4
3	중국	12,492	16,404	4	5	31.3
4	홍콩	15,016	13,208	5	4	-12
5	싱가포르	11,565	10,426	4	3	-9.9
6	영국	8,945	9,780	3	3	9.3
7	독일	8,240	8,969	3	3	8.8
8	방글라데시	7,208	8,752	2	3	21.4
9	네덜란드	5,431	8,652	2	3	59.3
10	네팔	5,517	7,291	2	2	32.2
14	대한민국	4,370	4,800	1	1	9.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 상위 10개 수출 품목>

(단위 : USD 백만, HS 코드 2자리)

순위	HS	품목	2017	2018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
					2017	2018	
1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35,896	48,293	11	15	34.5
2	71	보석, 귀금속	42,573	40,096	13	12	-5.8
3	84	기계류	16,649	20,400	5	6	22.5
4	87	일반차량	16,226	18,238	5	6	12.4
5	29	유기화합물	13,571	17,741	4	5	30.7
6	30	의약품	12,892	14,276	4	4	10.7
7	85	전자제품	8,798	11,785	3	4	33.9
8	72	철강	11,700	9,975	4	3	-14.7
9	52	면	6,897	8,130	2	3	17.9
10	62	의류(니트 제외)	8,983	8,125	3	3	-9.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 상위 10대 수입국가>

(단위 : USD 백만)

순위	국가	2017	2018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
				2017	2018	
0	WORLD	443,486	507,571	100	100	14.5
1	중국	71,971	73,738	22	23	2.5
2	미국	24,095	32,644	7	10	35.5
3	사우디아라비아	21,063	28,362	7	9	34.7
4	아랍에미리트	23,088	26,780	7	8	16
5	이라크	15,309	23,061	5	7	50.6
6	스위스	20,392	18,028	6	6	-11.6
7	대한민국	16,111	16,364	5	5	1.6
8	인도네시아	16,229	16,026	5	5	-1.3
9	홍콩	11,003	15,898	3	5	44.5
10	이란	11,058	14,769	3	5	33.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 상위 10개 수입 품목>

(단위 : USD 백만, HS 코드 2자리)

순위	HS	품목	2017	2018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
					2017	2018	
1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123,028	168,590	38	52	37
2	71	보석, 귀금속	74,363	65,027	23	20	-12.6
3	85	전자제품	46,857	52,399	15	16	11.8
4	84	기계류	36,001	43,231	11	13	20.1
5	29	유기화합물	17,970	22,578	6	7	25.6
6	39	플라스틱	13,021	15,190	4	5	16.7
7	72	철강	9,968	11,968	3	4	20.1
8	15	동식물성유지	11,876	10,165	4	3	-14.4
9	90	광학, 의료기기, 부품	8,442	9,455	3	3	12
10	28	무기화합물	5,594	7,262	2	2	29.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IV. 한-인도 경제 교류

1. 한-인도 교역 현황

□ 한-인도 무역투자 동향

- (교역) 양국 무역규모는 한-인도 CEPA(2009년 체결)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여 2011년 200억 달러 돌파 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7-2018 기간 회복세
 -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2017, 2018년 대인도 수출은 각각 29.8%, 3.7%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총 교역액 215억 달러 달성
 - * 양국 교역액 : 23억불('00) → 112억불('07) → 205억불('11) → 215억불('18)
 - 2018년 기준 한국의 7대 수출대상국으로, 총 교역액은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
- (무역수지) CEPA 발효 이전 5개년 평균 25.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대를 기록
 - 이에, 인도는 한국의 CEPA 개정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총 29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
 - 다만, 2018년 인도의 한국수출이 크게 증가(19%)하면서, 무역불균형이 다소 개선되었음.

□ 한국의 주요 수출입 동향

< 對인도 수출입 동향 >

(단위 : 억불,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금 액	80.1	114.4	126.5	127.8	120.2	115.9	150.5	156.1
	증가율	-10.7	42.7	10.7	12.4	-5.9	-3.6	29.8	3.7
수 입	금 액	41.4	56.7	78.9	52.7	42.3	41.8	49.4	58.8
	증가율	-37.1	37.0	39.1	-14.7	-19.6	-1.2	18.1	19.0
무 역 수 지		38.7	57.7	47.6	75.1	70.7	74.1	101.0	97.3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수출 동향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5대 품목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열연강판, 윤활유로 주요 수출 품목들은 소비재보다는 산업용 부품 및 기자재가 주를 이룸
- 인도 휴대폰 시장 성장과 함께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며 집적회로 반도체의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 반면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열연강판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은 감소함

○ 대한 수입규제 동향

-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수산업 육성 및 수입 억제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 대만, EU 다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및 반덤핑 사례가 많음(2016.6 기준)
- 인도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33건으로 미국, 중국을 제치고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1위임
- 화학, 기초금속 등 인도 보호 산업에 이용되는 제품들에 많은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많은 대인도 수출품목이 이 산업군들에 해당됨

○ 수입 동향

- 주요 수입품은 나프타,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기타 정밀화학원료, 합금철, 박류 등 기초 원자재 쪽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산업재와 소비재로 수입제품이 확대될 전망
- 對인도 수입은 '11년 USD 79억으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래 꾸준히 줄고 있음. 그러나 CEPA 등 경제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수입 비중이 늘어날 전망

- (주요품목) 對인도 수출품은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이며 수입품은 알루미늄, 석유제품 위주

< 한 · 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 >

(단위 : 억불, 전년 동기대비 %)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2017		2018			2017		2018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150.5	29.8	156.0	3.7	총계	49.4	18.1	58.8	18.9
철강판	17.5	35.6	21.6	23.4	석유제품	10.4	6.7	12.7	21.9
합성수지	11.0	22.9	14.3	29.3	알루미늄	8.4	68.1	9.0	6.5
반도체	6.2	57.2	12.8	105.4	합금철선철	2.6	50.5	3.3	24.7
자동차부품	9.6	1.0	9.4	-1.8	정밀화학원료	2.3	12.3	2.8	18.3
석유제품	5.7	26.9	7.2	26.8	농약및의약품	1.8	14.2	2.5	37.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2. 대인도 투자현황

○ (투자총괄) 2018년 9월까지 총 57.1억불을 투자

- '96~'97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0년 전후 인도의 경제성장과 CEPA발효 이후 진출 확대
-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자동차가 인도내 현대기아차 제3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노이다 공장을 대대적으로 증설완료

< 연도별 대인도 투자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1-9월	누적액
신고건수	264	268	308	310	3,355
투자금액	363,771	339,930	513,570	816,323	5,712,62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투자분야)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80% 이상 차지

<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

업종	2018.1-9월		누적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158	736,809	1,914	4,831,945
건설업	27	8,342	220	143,560
도소매업	39	37,006	375	312,515
기타	86	34,166	846	424,602
총계	310	816,323	3,355	5,712,62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투자기업) 전자, 자동차, 화학, 금융, 상사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주요 건설업체 대부분이 진출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

< 투자자 규모별 대인도 투자금액현황, 단위 : 개사, 건, 천달러 >

구분	신규법인	신고건수	신고액	투자액
대기업	339	1,146	6,513,556	4,969,899
중소기업	469	1,609	846,233	646,652
기타	265	600	118,696	96,071
총계	1,073	3,355	7,478,485	5,712,62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지역별 투자) 뉴델리(168개사) 및 첸나이(178개사)가 진출 중심지역이며, 뭄바이-푸네(100개사), 벵갈루루(38개사)에도 상당수 진출

지 역	기업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뉴델리 등 수도권지역	168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운송, 금융, 컨설팅, 화학, 도소매, 의료, 기타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POSCO 등
첸나이	178	자동차 및 부품, 건설,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 기타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등
뭄바이/푸네	100	제조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건설·중공업, 기타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 STAR-CJ 등
벵갈루루	38	연구개발, 제조업, 건설·공사업, 도소매·유통, 농림·수산업, 기타	삼성연구소, LG소프트,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콜카타	4	발전소	KC코트렐 등
계	488		

* 자료원 : KOTRA 인도지역 무역관 자료종합

다. 인도의 對韓 투자

- '18년 9월까지 신고기준 총 5.7억불로 미미한 수준
 - 유통, 음식 등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마힌드라그룹, 타타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도 진행
 - *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 인수(4.6억불), 타타, 대우상용차 지분 인수(1.0억불)
 - 인도가 강한 IT서비스 기업 일부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함.
 - * Tech Mahindra(연락사무소), TCS(연락사무소), HTC Global Service(2013년 진출)



V. 인도 시장특성

1. 인도 경제의 강점

- 광활한 국토 :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임
 -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에 이어 세계 7위의 면적을 보유, 특히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국토의 활용도가 뛰어남
- 약 13억의 인구 :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
 - 13.1억 명의 인구로 중국(13.9억 명)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
 - 인구 증가율 1.11%로 중국의 0.39%를 훨씬 능가, 2025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함
 - 경제성장과 함께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이 급증함
 - 인도 국민의 평균 연령이 28세 정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 기반
 - IT, 제약 등 BT, 우주항공, 수리/물리 등 기초과학 기반 구비
- 중장기적 본격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 진입
 - 2009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하락세를 보였으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다시 성장세로 반등
 - 외부에 크게 의존할 필요 없는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증가 일로에 있는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서비스/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 가능성
 -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라면 인도는 세계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정적인 경제 체제 및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체제
 - 2018년 3월 초 기준 USD 4,200억 외환보유고, 안정된 은행 시스템 보유
 -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각종 국가정책의 수립, '시행이 느리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강점



2. 인도 경제의 약점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시설)
- 관료주의 및 공무원의 부패 및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 과도한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 절대빈곤/극빈 계층 다수 존재
- 신분(카스트 제도) 및 종교적 갈등 상존
- 테러, 파키스탄과의 분쟁 및 조류 독감 등 우발적 사태 상존

3. 인도시장의 잠재력

-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대변하는 사례들
 - 과학자/엔지니어 조달 용이성 세계 1위(세계경쟁력 보고서)
 - Hot mail 창시자 (Sabeer Bhatia)
 - 펜티엄 칩 설계자 (Vinod Dham)
 - Sun Microsystem의 공동 설립자 (Vinod Khosla)
 - 시티은행 전CEO (Victor Menezes)
 - Mckensey의 전CEO (Rajat Gupta)
- 정부의 모바일기기 보급 장려 정책 등 새로운 모바일기기 신규 수요 확대
 - 인도는 2015년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 보유국이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 보유국임
 - 유무선을 합한 전체 통신망 가입자는 10억 명이 넘는데 이 같은 흐름에는 'Bharti Airtel', 'Vodafone', 'Idea' 등 인도 내 이동통신업체들의 고객 확보 경쟁이 큰 몫을 하고 있음
 - 인도의 통신 산업은 2020년까지 USD 34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자동차 시장
 - 2016년 기준 인도는 11년간 '빅5'를 유지하던 한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등극
 -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9-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인도 자동차산업협회(SIAM)에 따르면 2016-17년 자동차 생산량은 승용차 약 380만대, 상용차 약 81만대, 삼륜차 약 78만대, 이륜차 약 1,990만대를 기록
- 세계 섬유시장에서 인도의 부상
 -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 생산지를 확보(세계 면화 생산의 12% 차지)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조달의 용이성,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방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세계 섬유 생산 주요국으로 부상



4. 인도시장의 비즈니스 관행

□ 주요 시장 특성

- 소득 불균형과 소비의 양극화
-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하는 시장
- 신뢰보다는 가격에 따른 거래선의 잦은 변경
- 높은 관세장벽과 복잡한 관세 체계
- 수입시장의 지속적인 개방과 관세율 인하
- 비대한 공기업과 민영화의 진전
- 정부/공기업의 대규모 국제입찰 다수 발주
- 다국적기업들의 현지생산 및 아웃소싱 거점화 심화

□ 인도의 비즈니스 관행

- 인도는 대표적인 가격시장으로 대개 현지 바이어들은 수차례 협상을 통한 끈질긴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마진율이 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거래관계 구축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중시
-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을 구두로 약속한 것은 인도와 거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중요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문서화 필요
- 계약체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오직 최고위층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책임자와 협의해야 함 (실무자와의 협의결과는 쉽게 무시)
- 모든 협의 및 계약 시 에이전트 활용 유용
- 문서에 강함 (모든 계약조항은 꼼꼼히 확인 필요)



VI. 남인도 지역 현황

1. 타밀나두 개황

□ 타밀나두 개관

주명	Tamil Nadu는 ‘타밀인의 국가’ (Country of Tamil)를 의미
위치	인도 최남동단에 위치. 케랄라,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와 접경
면적	130,058km ² (면적기준 인도 내 11위), 해안선 길이는 1,076km
인구	약 7,215만 (Census 2011년 조사 기준 추정치, 이후 인구조사 미시행)
성비	남성 1000명당 여성 996명
주도	첸나이(Chennai)
행정구역	32개 District, 10개 city corporations, 125개 municipalities
종교	힌두교(87.58%), 기독교(6.12%), 이슬람교(5.86%), 기타(0.43%)
공식 언어	타밀어(Tamil)
주 의회	단원제(234석) * 1986년 이전에는 양원제

□ 타밀나두 역사

- 9세기-13세기까지 융성했던 Chola 왕조의 근거지
 - Chola 왕조는 인도 남부 전역을 지배했었으며, Rajendra Chola왕 시기 Chola 왕국 해군은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지역까지 진출
- 1600년대 초 덴마크, 네덜란드가 타밀나두 지역에 진출하였으며, 1639년 영국은 현지에 진출한 프랑스를 패퇴시키고 인도 남부지역 대부분을 Madras Presidency로 편입
- 1947년 독립 당시 Madras Presidency는 Madras주가 되었으며, Madras주는 현재의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주 해안가 지역에서 오디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였으나 언어권별로 주를 재구성하던 1956년 현재의 주가 Madras주라는 이름으로 탄생
- 1969년 Tamil Nadu주로 개명
 - 독특한 지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남인도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노동력과 대내외 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 중

□ 타밀나두 정치

- 타밀나두 주는 단원제 구성이며, 의회는 타밀나두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234명과 앵글로 인디언(인도 영국인 후손) 1명으로 구성되어 총 235명의 주의원으로 구성 (임기는 5년)
- 주요 정당으로는 진보 연합(AIADMK, 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 드라비다 진보 연맹(DMK, Dravida Munnetra Kazhagam)이 있으며 현재 진보 연합(AIADMK)이 집권여당임



- 주지사는 5년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 상징적 의미의 통치자로서 실질적 행정 권한은 주 총리와 주 의회가 가지고 있음
- 현재 주지사는 Banwarilal Purohit (2017년 10월 6일)
- 집권정당 (AIADMK : 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
 - AIADMK는 타밀나두주와 Pondicherry 연방직할지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 포퓰리즘을 추구
 - 2019년 총선에서 야당인 DMK에게 크게 패하며 정치세력은 유명무실해짐
- 주 총리 : Edappadi K. Palaniswami (2017년 2월 16일)
 - 주 총리는 타밀나두 정부의 실질적 행정 수반으로 5년 주기, 주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 2019년 총선과 함께 열린 보궐선거로 주지사 교체가 기대되었으나 야당의 과반 2/3확보 실패로 현 주지사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예정

□ 타밀나두 경제

- 타밀나두는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진출과 제조업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 비율이 2008년 35%에서 2030년에는 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인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산업구조 : 서비스업 45%, 제조업 34%, 농업 21%
- 제조업은 섬유(Coimbatore), 중공업/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
 -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 및 타이어 제조회사의 공장이 첸나이에 위치(현대차, BMW, FORD, 르노-닛산, 미쯔비시, 미쉘린, Hindustan Motors, TVS 자동차, 아폴로 타이어,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 첸나이에 인도 최대 전기부품 제조업체 Bharat Heavy Electricals Limited 위치, 타밀나두 주 Salem에는 인도 국영 철강업체인 SAIL의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음
 - 세계 주요 전자제품 회사(Nokia,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삼성, Cisco, Dell)의 생산 공장 위치
- 코임바토르, 티루뿌르, 에로드를 중심으로 인도 최대 섬유 제조 수출지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 티루뿌르는 인도 니트(knit) 웨어 수출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벨로르는 인도 최대 가죽 생산 가공 수출 지역으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약 USD 7억을 기록하고 있음



2. 케랄라 개황

□ 케랄라 개관

위치	남인도권으로 인도 서남단에 위치,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카르나타카(벵갈루루 소재), 동쪽으로는 타밀나두(첸나이 소재)와 접경
면적	38,863km ² (면적기준 인도 내 22위)
인구	약 3,338만 (Census 2011년 조사기준 추정치, 이후 인구조사 미시행)
GDP	USD 110 billion(2018-2019 추정치), 인도 내 8위 GDP
주도	티루반난타푸람 (Thiruvananthapuram)
행정구역	14개의 districts
종교	힌두교(54.73%), 이슬람(26.56%), 기독교(18.38%), 기타(0.32%)
공식 언어	말레알람(Malayalam), 영어 (English)

* 자료원 : 케랄라 주정부 및 투자홍보자료, 2011 인도 인구조사

□ 케랄라 경제 동향

- 케랄라의 주총생산(GSDP)은 USD110 billion으로 인도 전체 8위를 차지
 - 케랄라는 인도에서 8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년 대비 7.4% 성장
 - 주 경제는 농업, 어업, 조선업, 무역업, 서비스업으로 구성
 - 케랄라주는 인도 전체의 97%의 후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85%의 고무를 생산하고 있음. 그밖에 코코넛, 야자섬유등을 주로 생산함.
 - 케랄라주의 관광업은 주GDP의 10%를 차지함. 동방의 베니스라 불리우는 Alappuzha와 Fort Kochi, 티생산을 하는 hill stations of Munnar, Kovalam beach등의 주요관광지가 있음.
 - 상업도시 코치에는 인도 국영조선소의 하나인 코친 조선소와 해군기지가 있으며, 코친 조선소는 4만5천톤급 인도 토종항모 건조지임.
- 산업 인프라
 - 아라비안해에 위치하여 약 590km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어 일찍부터 항구가 발달하였고, 인근 주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보유함
 - 케랄라 주는 인도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 코치 항구와 17개의 minor 항구 운영
 - 케랄라 주에는 4개의 국제공항 (Thrivandrum International Airport, Cochin International Airport, 등)이 있고 최근에 코친 국제공항을 확장 재개발하는 등 항공 교통에 대하여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
 - 케랄라에는 145,704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4.62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인도 평균 2.59km 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임.



VII. 체류 활동 정보

□ 비즈니스 안내

○ 지역특성

- 남인도 5개주(Andhra Pradesh, Karnataka, Kerala, Pondicherry, Tamil Nadu)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여타 지역보다 자유화 및 개방화 속도가 빨라 인도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총액의 25-35% 이상을 점유
- 현대 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아, 삼성전자, 노키아, IBM, 모토로라, HP, Ford, Dupont, 닛산 등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생산 활동 수행
- 남인도는 인구 2억 5천만 명 이상, 풍부한 문화적 유산, 천연적 항구, 오랜 교역 역사로 인도 시장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
- 남인도는 문맹률, 교육, 지역개발, 보건 등 사회적 인프라는 여타 지역에 비해 발달하여 비즈니스 추진이 용이
- 문자 해독률은 인도 전체 평균인 50% 보다 높은 60% 수준이며, 중산층의 증가로 구매력도 급신장하는 추세
-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5% 내외로 추정되는 중상층 이상의 경우 우리나라 및 서구 일반 계층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시장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음
- 따라서 대중용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가격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인도 수출에 있어 1차적 관건이 가격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반면, 일부 상류층용 제품의 경우 가격보다 브랜드 이미지 등이 중요한 제품 선택의 요소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보험 등 주요 금융업과 전력, 가스, 통신, 정유, 운수, 도로 등은 물론 호텔 등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위주의 공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 많음
- 이에 따라 주요 원자재, 시설재 구매 시 이들 정부기관 및 공공기업들이 이행하고 있는 대규모 입찰이 주요 수입경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수입시장과 관련해서는 2001년부터 기존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던 715개 품목이 수입 자유화되어 무기, 마약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 이외에 별도 수입 규제는 완전히 철폐됨
- 부가관세 등을 합해 통상 28%를 전후한 높은 관세가 진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 관세율도 향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넓은 국토로 주요 상권이 경제 권역별로 분리, 북부의 뉴델리, 서부의 뭄바이 (구 봄베이), 서부의 콜카타, 남부의 첸나이(마드라스)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실수요자를 대리한 수입대행업체(Importing Agent)의 수입 비중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임

○ 상관행, 비즈니스 유의사항

- 인도는 가격시장으로 인도 기업인들은 상담 시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특히 가격 네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격 협상을 지루할 정도로 지속
- 또한 인도 기업인들은 처음 가격에서 최소 10% 정도의 D/C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상담 시 판매 가격에서 10% 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1차 7% 최종 3%를 추가 인하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가격 협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상담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
- 인도 기업인들에게 추가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줄 경우 여타 다른 기업의 유사한 모델의 가격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성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인도 기업인들은 가격 협상 시 언더밸류를 종종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사전 인수 후 선적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할 필요

□ 현지체류 참고사항

○ 기온 및 복장

- 첸나이 평균기온은 약 35°C로 사계절 내내 습하고 더운 날씨임
- 더운 날씨임에 따라 현지에서는 대부분 양복 및 넥타이를 착용치 않음 (공식석상에도 넥타이를 하지 않고 긴팔 와이셔츠만 입는 경우가 많음)

○ 환전 및 환율

- 은행, 공항, 일부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의 환전이 호텔 환율보다 유리
- 미화 5천 불 이상의 환전 시 입국 시 외화반입 신고 서류를 요청
- 환율 (2018년 3월 12일 기준) : USD 1= Rs.64.95 (* 매매기준율)

○ 전화

- 국제전화 : 00
- 서울 전화 사용 시 : 00-82-2-전화번호
- 호텔 통화 사용 시 : 외부통화 번호 0번 또는 9번을 누른 후 이용
- 공중전화 : PCO/STD/ISD의 노란 간판이 있는 곳에서 이용
- 휴대폰 : 한국 휴대폰 중 통신사(KT, SK)에 따라 자동 로밍 서비스가 됨



- 자동 로밍 서비스의 경우 착발신시 요금이 매우 비싸므로 주의를 요함
- 인도에서 휴대폰 사용 시, SIM 카드를 구입한 주나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음. 그러므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이 서비스는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도 발신은 안 되더라도 착신은 가능

○ 시내교통

- 렌 트 카 : 소형차종인 경우 1일 8시간 기준 대략 2,500루피 내외 소요
- 콜 택 시 : 기본요금은 100-150루피이며, 시간 거리 병산제
- 오토릭샤 : 삼륜차로 기본요금이 25루피이며, 시간 거리 병산제이나 사전 요금 협의를 요구할 때도 많음 (* 현지에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야간은 이용치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우버/올라 :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택시 이용 가능

○ 택시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우버, 올라)

- 우버

1. 어플리케이션 'Uber' 다운로드
2. 휴대폰 번호 입력 및 회원가입
(* 현지 유심을 통한 현지 전화번호 사용을 권장)
3. 도착지 주소 검색 후 선택
4. 예상 금액 확인 후 UberGo 선택 및 확인
5. 차량 번호 확인 후 해당 차량 도착하면 탑승 및 여정 시작

- 올라

1. 어플리케이션 'Ola Cabs' 다운로드
 2. 휴대폰 번호 입력 및 회원가입 (* 현지 전화번호 필요)
 3. 도착지 주소 검색 후 선택
 4. micro, mini, prime 중 선택 (일반적으로 micro-mini-prime 순으로 차의 크기가 넓으며 가격 또한 비쌈)
 5. 차량 번호 확인 후 해당 차량 도착하면 탑승
 6. 화면에 나와있는 OTP번호를 운전 기사에게 말해주면 여정 시작
- * 결제 메뉴 선택 후 해외 거래 가능한 카드 정보 입력하면 택시 기사에게 직접 현금 결제 필요 없이 자동 결제 가능
 - * 지난 여정 메뉴를 통해 지난 이용 기록 및 비용 확인 가능
 - *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스마트폰 위치 기능 활성화 권장
 - * 올라의 경우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사와 영어로 의사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택시 및 렌트카 이용방법 (공항- 시내)

- 공항에서 시내중심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항에서 시내 간 평균 주행속도가 40km/h로 택시기준 30분 소요
- 공항 내 Travel Desk(선불제) 또는 공항청사 밖에 대기 중인 택시 이용
-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시간 거리 병산제이나 바가지요금 성행으로 승차 전 반드시 운전자와 협상을 하여 요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항-시내 간 택시요금은 Rs.500(USD 8, 야간의 경우 20% 내외 할증) 정도이나 차량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교통 이용 시 참고사항

- 인도는 영어 사용 국가이나 택시운전자 중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는 곳의 주소를 보여주거나 호텔 협조를 받을 것을 권고
- 신변 안전을 위해 콜택시나 호텔 택시를 권장하며, 오토릭샤는 운전기사들과 영어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용 시 요금 사전 협상 필요 : 시내 Rs.30-150)

○ 첸나이 소재 호텔

호텔명	등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설
ITC Grand Chola	5 Star	2220-0000 2220-0200	- 뷔페식당, 인도/양식 - 이태리식당 등
Hyatt Regency	"	6100-1234 6100-1235	- 뷔페식당, 중식당 - 이태리식당
The Park	"	4267-6000 4214-4100	- 양식/뷔페식당
Courtyard Marriott	4 Star	6676-4000 6676-4001	- 이태리식(Rhapsody)
Residency Towers	"	2815-6363 2815-6969	- 인도식, 양식 식당(Sky Lounge)

○ 한국인 운영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하우스명	운영자	휴대폰(+91-)	비고
달선 호텔	오달선	98410-12002	현대공장인근
한강게스트 하우스	김재현	97890-23478	첸나이 시내
미소게스트 하우스	-	95000-46426	첸나이 시내



○ 한식당

식당 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시간	추천 메뉴
New Seoul Hotel (현지인 운영)	No.406, TTK Road, 1st Cross Street, Alwarpet, Chennai, Tamil Nadu 600018	044-4213-8884	11:30am-14:30pm 18:00pm-22:00pm	삼겹살, 갈비살, 골뱅이수프, 김치찌개
말죽거리 (한국인 운영)	Mevalurkuppam, Tamil Nadu 602117	098-4002-0004 078-1088-0077	11:00am-15:00pm 17:00pm-22:00pm	짜장면, 김치찌개, 해물탕, 삼겹살, 차돌박이, 갈비살
달선 (한국인 운영)	Ramanujar Street, MBT Rd, Katchipedu, Sriperumbudur, Tamil Nadu 602105	092-8252-1285	6:00am-8:30am 12:00pm-14:00pm 17:30pm-21:00pm	비빔밥, 된장찌개, 덮밥류
경주 (한국인 운영)	151, Gandhi Road, Sriperumbudur, Tamil Nadu 602105	077-0871-2454 073-9722-5911	12:00pm-14:00pm 18:00pm-21:00pm	동태알찜, 냉채족발, 해물찜, 오리샐러드, 간장치킨
미가 (한국인 운영)	MRL Complex, Survey No. 318 / 3, Sriperumbudur A-Block and Nemili B-Block, Bimanthangal Village, Sriperumbudur Taluk, Kancheepuram District, Sri Ram Nagar, Sriperumbudur, Tamil Nadu 602105	075-5008-8864	5:00pm-11:00pm	잡스테이크, 간장돼지볶음



○ 일식당

식당 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시간	추천 메뉴
Hokkaido (홋카이도)	Cenotaph Rd, Near To ganeshpuram, Rathna Nagar, Teynampet, Chennai, Tamil Nadu 600018	044-4201- 6997	11:30am-14:30pm 17:30pm-22:30pm	카레류, 덮밥류, 사시미
Fuji (후지)	Old Tower Block, Old No 10, New No 134, Pasumpon Muthuramalinga Thevar Rd, Nandanam Extension, Nandanam, Chennai, Tamil Nadu 600035	044-4211- 2511	12:00pm-15:00pm 18:00pm-22:30pm	초밥, 사시미, 튀김류
Dahlia (다할리아)	Kaveri Complex, Mcrenette Bakery Building, Landmark:, Subba Road Avenue, Nungambakkam, Chennai, Tamil Nadu 600008	044-2826- 5240	12:00pm-21:00pm	초밥, 스테이크, 전통 일본식 요리

○ 기타 아시아 식당

식당 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시간	주메뉴
Soy Soi (소이소이)	2/10, Gandhi Mandapam Rd, Chitra Nagar, Kotturpuram, Chennai, Tamil Nadu 600085	044-2447-2557	12:00pm-3:30pm 7:00pm-11:00pm	볶음밥(나시 고령), 딤섬, 볶음면 등
Benjarong Restaurant (벤자롱)	146, TTK Road, Alwarpet, Chennai, Tamil Nadu 600018	044-2432-2640	12:00pm-3:00pm 7:00pm-11:00pm	볶음면 (팟타이), 볶음밥 등



VIII. 주요 연락처

○ 첸나이 무역관

- 주 소 : No. 12/1, Old no. 11, Bashyam Basheer Ahmed Street (also known as Bashyam Basheer Ahmed Road), Alwarpet, Chennai - 600 018
- 전 화 : (91-44) 2433-7280, 7282-5
- 핸드폰: **한정희 관 장** (91) 98400-25933
서정혁 차 장 (91) 98408-14159
김태룡 과 장 (91) 73388-76511
김다운 과 장 (91) 63818-97227
최미리 과 장 (91) 87544-77476
- 팩 스 : (91-44) 2499-4728
- 홈페이지 : www.kotra.or.kr/KBC/chennai
- E-mail : kotra@chennaiktc.com / 712419@kotra.or.kr

* 한국에서 전화할 경우에는 (국제전화번호)-91-(44)-(전화번호)로 걸면 됨

○ 기타 주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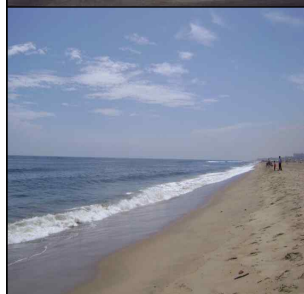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한국대사관 (뉴델리소재)	(91-11) 4200-7083/ 야간: 098115-01848
첸나이 총영사관	(91-44) 4061-5500 (김형태 총영사)
첸나이 한국 명예영사관	(91-44) 2823-7307 (명예영사 Dr. Venu Srinivasan)
구급차 요청	1066
경찰신고	100
화재신고	103
전화번호 안내	197

IX. 기타정보

□ 주요 관광지



- 도마성당(San Thome Basilica, 첸나이)
 -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St. Thomas)의 무덤위에 세워진 성당
 - 16세기경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으며, 전세계적으로 예수님 제자의 무덤위에 세워진 성당은 세 개에 불과 (로마 베드로성당, 스페인 야고보성당)
 - 1893년 영국인에 의해 지금 형태로 재건축됨
 - 도마성인은 서기 52년에 인도 케랄라에 도착, 서기 72년에 첸나이에서 순교함



- 마리나비치(Marina Beach, 첸나이)
 - 인도양의 일부인 벵골 만(Bay of Bengal)을 따라 펼쳐진 해변
 -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길이가 13km에 달하는 세계 2번째의 해변이며 평균 해변 폭은 300m임(거센 파도로 해수욕은 법으로 금지)
 - 서민들의 휴식처로 주말 평균 30,000명이 운집



- 스펜서 플라자(Spencer Plaza, 첸나이)
 - 도심에 위치한 쇼핑몰이자 재래시장이며 첸나이의 주요 랜드 마크
 - 식민지시기인 1863년 건축되었으며, 1895년 인도 최초의 백화점으로 오픈함
 - 원래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고, 1985년 지금 형태로 재건축됨
 - 첸나이를 대표하는 쇼핑몰이었으나, 지금은 기념품 등을 파는 재래시장으로 기능
 -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 지어졌을 당시 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었음








- 익스프레스 에비뉴 몰(Express Avenue Mall 혹은 E.A. Mall, 첸나이)
 -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 쇼핑몰
 - 의류, 잡화, 식료품, 영화관, 음식점 등 210개 매점 입주
 - 총면적 : 84,000m²



- 도마 마운트 성당(St. Thomas Mount, 첸나이)
 - 1523년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도마성인의 순교지 위에 건축됨
 -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 요한바요로 2세가 방문함
 - 해발 90m 정도지만, 첸나이지역 유일한 언덕으로 시내 전체 조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하발리푸람 (Mahabalipuram, 첸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첸나이 시내에서 5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변에 위치한 고대(7세기 건축) 사원, 화강암 절벽에 조각된 동물형상, 궁전터 등이 유명함.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며 입장료는 Rs.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Government Museum, 첸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7년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지질학, 고고학, 인류학, 동물학, 식물학 등 다양한 전시 물품 보유 - 관람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닉스 마켓시티(Phoenix Market City, 첸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면적 1,000,000m²의 첸나이 최대쇼핑몰 - 의류, 잡화, 식료품 뿐 아니라 영화, 놀이시설 및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 - 약 250개의 매점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발람 비치(트리반드룸, 케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발람은 아라비안 해에 위치한 해안타운으로 코코넛나무의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1970년 초에 많은 수의 히피들이 실론을 목적지로 한 히피 트레일중 코발람비치에 머무른 것을 계기로 어촌 마을이었던 코발람이 케랄라의 주요 관광지중 하나로 탈바꿈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라푸자(알라푸자, 케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피’라고도 알려져 있는 알라푸자는 174,164인구가 살고있는 도시이며 동방의 베니스라고도 불림. - 백워터와 알라푸자 비치, 하우스 보트가 유명함.

□ 유용한 타밀어 표현

- 안녕하세요? : 바나캄
- 저는 ○○라고 합니다. : 엔-페르 ○○ / 난 ○○
- 감사합니다 : 난드리 (정말 감사합니다 : 밀카 난드리)
- 예(Yes) : 아마 (* 고개를 좌우로 흔들)
- 아니요(No) : 일레
- 어서 오세요 : 방-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방-가방-가)
- 도와주세요 : 우다비 번룽가 (help me 라고 해도 대부분 알아듣긴 함)



□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 전기 규격은 220V, 50Hz를 사용하나 전압이 일정치 않아 전자제품 사용 시 안정기(UPS)를 함께 사용함. 플러그 타입은 한국과 동일한 Round Type이나 크기가 2종류가 있음
- 은행, 공항, 일부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함. 환전소 및 호텔에서의 환율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음. 미화 5천 불 이상의 외화 반입 시 신고 서류를 요청
- 현지에서 고액권으로 계산하려는 경우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쓸 수 있으므로 환전할 때 소액권(200루피 또는 100루피)으로 환전하는 것을 권장 (2000루피 같은 고액권은 계산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500루피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으나 2017년 화폐개혁의 결과로 500루피 구권과 1000루피 구권은 사용할 수 없음
- 야간에 홀로 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 어두운 지역에 외국인이 혼자 있으면 범행 대상이 됨)



해외에서의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2017.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